

주요개념 : 양육, 우울, 아버지, 어머니, 유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허보윤* · 한경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적 우울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두 배로 높게 발생하고 자녀가 있는 20-40세 여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양육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인이다.(White, & Barrowclough, 1998). 어머니의 우울증은 자녀양육에 필수적인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나 상호작용 반응의 결여로 인해 부모역할능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유아기 자녀의 인지, 정서 발달 및 행동 조직능력의 저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Hoffman, Crnic, & Baker, 2006). 미국에서 어린 자녀를 둔 모성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정서적 조절장애나 문제 행동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의 우울증은 조기에 사정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Civic, & Holt, 2000). 모성우울은 자녀의 출생 후 신생아기와 3세

이후에 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모성우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중재로서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Fields, 1998). 국내에서도 최근 모성우울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아동의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이 일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책임이 강조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남편의 자녀 돌봄의 도움에 따라 차이가 있고(Lee, J. W., 2003),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우울 감소에 남편의 지지와 자녀양육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Fletcher, 2009; Mezulis, Hyde, & Clark, 2004; Misri, Kostaras, Fox, & Kostaras, 2000)들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아버지의 부모역할이 중요함을 암시해 준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에 대해 경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신저자 허보윤 : prettybboyuni@hanmail.net

적 자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는 보호자나 사회적 규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였던 반면, 어머니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핵가족이 증가하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였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책임이 커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로 공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버지를 아동 발달에 잊혀진 공헌자라고 칭하며 그 동안 간과해 온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한 Lamb의 연구(1975) 이래 최근 사회의 변화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아 발달에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지한 연구들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모역할에 대한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Gurian(2007)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있어 사회적 이론에 바탕을 둔 어머니 혹은 아버지 부모역할의 차이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자녀의 생물학적 본성을 길러주어야 하는 부모역할체계 안에서 부모역할의 관점으로 보아 개별적인 가족으로서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핵심요소인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부모역할(Parenting)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모성부모역할의 가치와 함께 이 세상의 아동들은 아버지에게 의한 부모역할의 가치도 역시 경험해야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Wilder(1982)는 어떤 생물의 종보다도 지적이며 창의적인 인간은 자연의 노예일 필요가 없는 인간본성(nature)에 의해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부모의 양상을 학습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내 비간호학 분야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아버지 역할이나 참여와 유아발달에 관하여 연구(Mun, 2008; Hong & Jung, 2008)가 이루어져 자녀발달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

요성이 확인되었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효과와(Kim & Lee, 2005; Lee, J. S., 2003). 남성들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Kang & Yoo, 2005)가 있다. 간호학분야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부-이상호작용(Kim, 1998), 초산모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연구(Sung & Joo, 2007), 아버지의 아동양육태도에 대한 연구(Kim & Kim, 2008)외에는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와 그 영향요인 및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변화해가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아동건강을 위한 자녀양육의 아버지역할에 관련된 지식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파악한다.

둘째,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비교한다.

넷째, 유아기자녀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 우울정도를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와 B시 소재의 임의로 선정한 어린이집 8곳과 보건소 2곳에서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91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3. 연구 도구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

본 연구에서 만 1-3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개발하였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 5점 likert척도 즉, 1점(전적으로 어머니가 한다), 2점(반이상 어머니가 한다), 3점(반정도씩 분담하는 편이다), 4점(반이상 아버지가 한다), 5점(전적으로 아버지가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00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를 많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ng 등(2006)이 실시한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중 아동돌봄에 관련된 내용과 아버지 양육 참여도구에 대한 문헌고찰(Mun, 2008; Lee, 2008) 및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양육행동을 바탕으로 위생·배설·식사·취침·가사활동·정서·외출·의료 또는 간호·교육관련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것으로 28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만들었다. 2009년 8월 17

일부터 8월 19일까지 만 1-3세 어머니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7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을 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발한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3명의 아동간호학 교수에게 의뢰하여 28개의 초기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 즉 1점(전혀 관련없음), 2점(다소 관련있음), 3점(상당히 관련있음), 4점(매우 관련있음)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3명의 전문가 모두가 3-4점을 부여한 문항이 24문항이었고 (CVI(Content Validity Index)=0.95), 1-2점인 4개 문항은 삭제하였다. 24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0.5이하인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4개 문항이 삭제되고 총 20문항,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Varimax 회전한 5개의 요인의 설명변량은 70.34%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요인1은 '자녀의 사회적 발달 촉진 행위'(6문항), 요인2는 '자녀의 개인위생 돌보기'(4문항), 요인3은 '자녀의 정서-언어적 자극'(4문항), 요인4는 '수면-기상 촉진 행위'(3문항), 요인5는 '자녀의 건강유지·회복 돌보기 행위'(3문항)로 명명하였다<Table 1>. 총 20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고, 각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77~.88이었다. 또한 반분법에 의한 Guttman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Table 2>.

2) 어머니 우울 측정

어머니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Han(2001)이 번역한 우울도구(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경향의 증상을 사정하기 위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도구이며 총 21문항으로 인지적, 행동적,

<Table 1> Factor analysis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items

Factor (No of items)	No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Fostering social development (6)	23	Visit relatives/neighborhood with my child.	.84	3.69	18.44
	21	Go out with my child. (watching performance or movie, go to museum or zoo etc.)	.83		
	22	Go to market with my child.	.70		
	17	Have outdoor activities with my child. (take a walk, play at the playground)	.62		
	27	Buy toys, clothes, and food for my child.	.56		
	19	Teach my child good behaviors.	.55		
Caring for personal hygiene (4)	2	Give my child a bath.	.84	3.03	33.57
	1	Help my child wash his/her face and brush his/her teeth.	.76		
	4	Help my child for toileting. (change diapers, use baby toilet)	.76		
	3	Help my child put on or take off clothes.	.76		
Fostering emotional-linguistic development (4)	14	Read books or tell stories to my child.	.84	2.69	47.03
	15	Sing my child's favorite song.	.76		
	16	Play games with my child.	.76		
	26	Listen to my child's talk.(talk about things happened in daycare/kindergarten with my child)	.76		
Fostering habits of sleep (3)	7	Hush my crying child to sleep when he/she wakes up during the night.	.80	2.33	58.70
	6	Put my child to sleep.	.79		
	5	Wake up my child and make up bed.	.63		
Health care management (3)	9	Take my child to the doctor's office for immunizations.	.88	2.33	70.34
	10	Take my child to the doctor when my child is sick.	.83		
	11	Medicate my child when he/she is sick.	.64		

<Table 2> Internal consistency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items

Factor	Number of items in scale	Cronbach's α coefficient	Guttman Split half coefficient
Fostering social development	6	.87	.88
Caring for personal hygiene	4	.88	.84
Fostering emotional-linguistic development	4	.85	.81
Fostering habits of sleep	3	.77	.62
Health care management	3	.83	.64
Total	20	.93	.78

정의적, 신체적 반응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자가 보고한 각 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총 21문항의 4점 척도로서 최저 0점에서 63점 사이의 분포로서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득점점수의 총합이 0-9점 사이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10-18점 사

이를 경한 우울상태로 19점 이상은 심한 우울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Han(2001)의 국문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9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보건소장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허락을 받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과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어머니들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아동과 부모의 익명 보장과 응답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어린이집에 배부한 설문지는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과 함께 어머니들에게 전달되었고, 작성후 아동편으로 전달되어 보육교사들이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약 85%였다. 보건소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어머니들에게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지 응답에는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291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자료가 부실한 14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277명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최종 도구의 신뢰도와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와 Guttman 신뢰도 계수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어머니,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자녀성별은 남아가 46.6%, 여아가 53.4%로 여아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자녀의 연령은 만1세, 2세가 각각 38.6%, 37.2%이었고 평균 1.86세(27개월)이었고, 자녀의 출생 시 재태기간과 관련된 아기의 상태는 대부분 만삭이었으며, 미숙아가 6.9%였다. 자녀 순위는 첫째가 59.6%, 현재 질병은 대부분 없는 상태이나 4.3%는 고관절 탈구, 감기, 수진증, 아토피, 알레르기, 중이염을 앓고 있었으며, 53.4%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은 까다로

<Table 3>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27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Boy	129 (46.6)
	Girl	148 (53.4)
Age (year(month))	1(12-23)	107 (38.6)
	2(24-35)	103 (37.2)
	3(36-47)	67 (24.2)
Gestational age	Pre-term	19 (6.9)
	Full-term	258 (93.1)
Birth order	1	165 (59.6)
	2	99 (35.7)
	3	13 (4.7)
Health problem	None	265 (95.7)
	Yes	12 (4.3)
Attending day care center	Yes	148 (53.4)
	No	129 (46.6)
Temperament	Easy	106 (38.3)
	Moderate	129 (46.6)
	Difficult	42 (15.2)
Sleep · awake time	Regular	213 (76.9)
	Irregular	62 (22.4)
	Don't know	2 (0.7)
Bowel · bladder time	Regular	169 (61.0)
	Irregular	85 (30.7)
	Don't know	23 (8.3)
Habits Eating time	Regular	213 (76.9)
	Irregular	62 (22.4)
	Don't know	2 (0.7)
Paly time	Regular	182 (65.7)
	Irregular	75 (27.1)
	Don't know	20 (7.2)

<Table 4> Characteristics of parents

(N=27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or M±SD	
		Father	Mother
Age (year)		35.52±4.37	33.17±3.45
	21-30	28 (10.4)	56 (20.4)
	31-40	212 (78.5)	212 (77.1)
	41≤	30 (11.1)	7 (2.5)
Religion	None	120 (43.3)	92 (33.2)
	Christian	101 (36.5)	125 (45.1)
	Buddhism	44 (15.9)	43 (15.5)
	Catholic	12 (4.3)	17 (6.1)
Education	High school	59 (21.3)	64 (23.1)
	University	186 (67.1)	192 (69.3)
	Graduate school	32 (11.6)	21 (7.6)
Occupation	None	5 (1.9)	164 (59.6)
	Laborer	19 (7.1)	2 (0.7)
	Service	35 (13.1)	21 (7.6)
	Private practice	34 (12.7)	1 (0.4)
	Office worker	76 (28.4)	27 (9.8)
	Administrator	21 (7.8)	5 (1.8)
	Professional	78 (29.1)	55 (20.0)
Monthly income (won)	≤2,000,000		48 (18.2)
	2,000,001-3,000,000		87 (33.0)
	3,000,001-4,000,000		46 (17.4)
	4,000,001≤		83 (31.4)
Marriage period (year)		5.66±3.07	Range(2-18)
	≤3		71 (25.6)
	3-6		125 (45.1)
	6		81 (29.2)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		188 (67.9)
	Moderate		69 (24.9)
	Unsatisfaction		20 (7.2)
Pregnancy intention	Planned		196 (70.8)
	Unplanned		81 (29.2)
Utilization of information about child-rearing (plural answer)	Books, Magazine		126
	TV, Internet		208
	Parent education(lecture)		30
	Doctor or nurse		20
	Mother		41
	Mother in law		22
	Friends, neighborhood		149
	relatives		18
Family structure	Nuclear		225 (81.2)
	Expanded		52 (18.8)
Secondary caregiver (among nuclear family)	None		115 (51.1)
	Grandparents		92 (40.9)
	Relatives or maid		18 (8.0)

운 편이 15.2%였으며, 자녀의 소·대변보는 습관과 놀이행동에 대해서 각각 8.3%이었으며, 7.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에게 대한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아버지 연령은 평균 35.52세, 어머니 연령은 33.17세로 31-40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버지 종교는 무교가 43.3%, 어머니 종교는 기독교가 45.1%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 67.1%, 69.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버지 직업은 전문기술적이 29.1%, 어머니는 59.6%가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월평균 가정수입은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33.0%이었다. 결혼기간은 3년에서 6년 사이가 45.1%, 결혼생활 만족도는 67.9%이상이 만족하는 편이다. 대상자녀에 대한 임신은 70.8%가 계획된 임신이었고, 자녀양육에 관련된 정보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핵가족인 경우 부부 이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51.1%가 없고, 40.9%는 자녀 조부모이었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 아버

<Table 5>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N=277)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Mean	SD	Range	Item mean±SD
Fostering social development	15.61	4.31	6-27	2.60±.71
1 Visit relatives/neighborhood with my child.	2.78	.87		
2 Go out with my child. (watching performance or movie, go to museum or zoo etc.)	2.74	.96		
3 Go to market with my child.	2.64	.94		
4 Have outdoor activities with my child. (take a walk, play at the playground)	2.68	.99		
5 Buy toys, clothes, and food for my child.	2.33	.92		
6 Teach my child good behaviors.	2.43	.89		
Caring for personal hygiene	8.71	3.23	4-18	2.18±.81
7 Give my child a bath.	2.17	1.09		
8 Help my child wash his/her face and brush his/her teeth.	2.08	.95		
9 Help my child for toileting. (change diapers, use baby toilet)	2.20	.84		
10 Help my child put on or take off clothes.	2.26	.88		
Fostering emotional-linguistic development	9.25	2.99	4-20	2.31±.75
11 Read books or tell stories to my child.	2.14	.92		
12 Sing my child's favorite song.	2.19	.94		
13 Play games with my child.	2.54	.90		
14 Listen to my child's talk.(talk about things happened in daycare/kindergarten with my child)	2.37	.84		
Fostering habits of sleep	5.50	2.38	3-15	1.83±.79
15 Hush my crying child to sleep when he/she wakes up during the night.	1.78	.96		
16 Put my child to sleep.	1.86	.86		
17 Wake up my child and make up bed.	1.87	.97		
Health care management	5.53	2.44	3-15	1.84±.81
18 Take my child to the doctor's office for immunizations.	1.83	.96		
19 Take my child to the doctor when my child is sick.	1.95	.97		
20 Medicate my child when he/she is sick.	1.74	.88		
Total	44.60	12.06	20-75	2.23±.60

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44.60±12.06점(문항평균 2.23±.60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자녀의 사회적 발달 촉진 행위'는 15.61±4.31점(문항평균 2.60±.71점), '자녀의 개인위생 돌보기'는 8.71±3.23점(문항평균 2.18±.81점), '자녀의 정서-언어적 자극'은 9.25±2.99점(문항평균 2.31±.75점), '자녀의 수면-기상 촉진 행위'는 5.50±2.38점(문항평균 1.83±.79점), '자녀의 건강유지·회복 돌보기 행위'는 5.53±2.44점(문항평균 1.84±.81점)으로 나타났다<Table 5>.

아버지 양육참여도 총점 20-40점미만을 '낮은 참여도', 40-60점미만을 '중간정도 참여도', 60점 이상을 '높은 참여도'로 구분하였을 때 57%가 중간정도의 양육참여도를 그리고 9.4%만이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52.3%가 정상이라고 나타났으나 대상자의 35.4%는 경한 우울, 12.3%는 심한 우울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전체 우울 평균점수는 총 63점 만점에 10.24±7.70점이었다<Table 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점수별로 '낮은 참여

도'(20-40점미만), '중간정도 참여도'(40-60점미만), '높은 참여도'(60점이상)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참여도의 분류에 따라서 어머니 우울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F=5.49, p=.005). 사후검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은 경우 중간정도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우울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7>.

3. 자녀와 부모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를 보인 자녀와 부모의 특성으로는 자녀의 출생순위(F=3.35, p=.036), 아버지 학력(F=3.07, p=.048), 어머니 직업유무(t=-3.56, p=.008), 월평균 가정수입(F=4.94, p=.002), 결혼생활 만족도(F=17.24, p=.000), 핵가족인 경우 부부외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유무(F=3.08, p=.048)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사후검정시 그룹간 차이를 보인 것은 월평균 가정수입, 결혼생활 만족도로 월평균 가정수입은 401만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편인 경우 중간정도와

<Table 6>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N=277)

Variable	Classification	n (%)	Mean±SD (range)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Low involvement (20-40)	93 (33.6)	44.60±12.06 (20-75)
	Middle involvement (40-60)	158 (57.0)	
	High involvement (60≤)	26 (9.4)	
Maternal depression	Normal (0-9)	145 (52.3)	10.24±7.70 (0-62)
	Mild depression (10-18)	98 (35.4)	
	Serious depression (19-63)	34 (12.3)	

<Table 7> Difference of maternal depression followed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N=277)

Variable	Classification	Maternal depression				Turkey
		Mean	SD	F	p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Low involvement (20-40)①	12.33	7.84	5.49	.005	①>②
	Middle involvement (40-60)②	9.06	7.45			
	High involvement (60≤)③	9.88	7.34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점수에 차이를 보이는 부모 특성은 어머니의 종교(F=2.76, p=.043), 아버지의 학력(F=5.56, p=.004), 어머니의 학력(F=4.46, p=.012), 아버지의 직업(F=2.87, p=.010), 월평균 수입(F=5.69, p=.001), 결혼생활 만족도(F=29.00, p=.000), 핵가족인 경우 부부이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유무(F=3.59, p=.029)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사후검정시 그룹간 차이를 보인 것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평균 가정수입, 결혼생활 만족도, 핵가족인 경우 부부이의 아이 돌보는 사람 유무로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하가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인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았고, 어머니 학력도 고졸이하가 대학원 이상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았고, 월평균 가정수입이 200만원이하 그리고 201-300만원인 경우 4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았다. 결혼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중간정도인 경우보다 그리고 중간정도인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 점수가 높았고, 핵가족인 경우 부부이의 아이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친척이나 양육도우미가 있는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8>.

<Table 8> Differenc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followed children and parents characteristics (N=277)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Maternal depression				
		Mean	SD	F or t	p	Scheffe	Mean	SD	F or t	p	Scheffe
Gender	Boy	44.04	12.43	-.72	.284		11.22	8.64	1.99	.174	
	Girl	45.09	11.74				9.39	6.65			
Age (year(month))	1(12-23)	45.49	10.68	1.30	.274		10.28	8.49	.10	.904	
	2(24-35)	45.00	12.73				10.00	7.48			
	3(36-47)	42.57	12.06				10.54	6.72			
Gestational age	Pre-term	45.68	9.26	.41	.142		10.11	7.53	-.08	.545	
	Full-term	44.52	12.25				10.25	7.72			
Birth order	1	45.18	12.29	3.35	.036		10.01	7.30	.41	.664	
	2	42.77	11.53				10.76	8.44			
	3	51.23	10.71				9.23	6.83			
Health problem	None	44.86	11.95	1.68	.651		10.21	7.81	-.28	.191	
	Yes	38.92	13.59				10.83	4.78			
Attending day care center	Yes	44.55	12.59	-.077	.299		9.88	7.22	-.83	.638	
	No	44.65	11.46				10.65	8.22			
Temperament	Easy	45.21	11.96	.63	.533		9.70	7.58	.73	.484	
	Moderate	43.74	12.51				10.31	8.22			
	Difficult	45.69	10.90				11.38	6.21			
Father age (year)	21-30	45.75	10.80	2.89	.058		9.29	5.97	.45	.639	
	31-40	44.98	11.70				10.17	7.09			
	41≤	39.67	12.67				11.20	12.29			
Mother age (year)	21-30	45.93	13.313	1.34	.263		9.52	6.03	2.22	.111	
	31-40	44.563	11.67				10.21	7.24			
	41≤	38.143	12.67				16.00	22.29			
Religion (father)	None	43.82	12.35	.90	.444		11.41	8.59	1.66	.176	
	Christian	45.02	11.95				9.33	7.07			
	Buddhism	44.41	11.62				9.25	6.65			
	Catholic	49.58	11.67				9.83	5.81			

〈Table 8〉 Differenc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followed children and parents characteristics(continued) (N=277)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Maternal depression				
		Mean	SD	F or t	p	Scheffe	Mean	SD	F or t	p	Scheffe
Religion (Mother)	None	44.87	12.02	.93	.428		12.07	8.47	2.76	.043	
	Christian	44.14	12.12				9.48	7.58			
	Buddhism	43.60	11.77				9.30	6.33			
	Catholic	49.00	12.53				8.29	5.85			
Education (father)	High school①	41.41	12.27	3.07	.048		13.12	10.06	5.56	.004	①>②, ③
	University②	45.16	11.88				9.57	6.72			
	Graduate school③	47.22	11.92				8.81	6.94			
Education (mother)	High school①	42.00	13.74	1.97	.141		12.16	10.47	4.46	.012	①>③
	University②	45.44	11.71				9.99	6.61			
	Graduate school③	44.86	8.59				6.67	5.35			
Occupation (father)	None	51.00	6.12	1.16	.328		17.20	25.29	2.87	.010	
	Labore	41.79	12.90				14.16	9.79			
	Service	43.06	13.11				11.20	7.10			
	Private practice	42.88	12.81				9.65	5.31			
	Office worker	44.68	12.40				10.53	7.58			
	Administrator	48.62	10.61				6.29	4.57			
	Professional	45.90	10.94				9.28	6.51			
Occupation (mother)	Not have	42.47	12.71	-3.56	.008		11.76	8.01	3.94	.241	
	Have	47.65	10.42				8.13	6.67			
Monthly income (won)	≤2,000,000①	40.40	11.96	4.94	.002	④>①	12.81	10.61	5.69	.001	①,②> ④
	2,000,001-3,000,000②	44.83	13.10				11.30	7.56			
	3,000,001-4,000,000③	43.22	10.76				10.74	6.70			
	4,000,001≤④	48.17	9.97				7.65	5.76			
Marriage period (year)	≤3	44.83	11.24	.03	.976		9.94	6.73	.66	.520	
	3-6	44.60	13.08				9.87	6.98			
	6	44.40	11.22				11.06	9.39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①	47.36	10.57	17.24	<.001	①>②, ③	8.16	6.91	29.00	<.001	③>② ②>①
	Moderate②	39.01	12.79				13.57	7.20			
	Unsatisfaction③	37.90	13.78				18.25	7.38			
Pregnancy intention	Planned	44.64	11.97	.09	.483		10.14	7.70	-.34	.215	
	Unplanned	44.49	12.33				10.48	7.73			
Family structure	Nuclear	44.71	12.35	.32	.258		10.32	7.95	.37	.459	
	Expanded	44.11	10.79				9.88	6.54			
Secondary caregiver (among nuclear family)	None①	42.89	12.82	3.08	.048		11.18	8.96	3.59	.029	①>③
	Grandparents②	46.12	12.23				10.11	6.47			
	Relatives or maid③	46.17	7.22				5.89	6.63			

IV. 논 의

만1-3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위 문항별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하위요소로 '자녀의 사회적 발달 촉진 행위', '자녀의 정서-언어적 자극' 행위였고, 평균보다 낮은 하위요소로는 '자녀의 개인위생 돌보기', '자녀의 건강유지·회복 돌보기 행위', '자녀의 수면-기상 촉진 행위'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친지나 이웃 방문하기, 자녀와 함께 외출하기 등 단순 목적의 외출하기가 비교적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높으면서 덜 어렵게 느끼는 행동이라는 것과 자녀의 개인위생을 돕거나 재우고 깨우며, 아플 때 돌보는 등의 양육참여도는 낮으면서 이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어린 자녀의 일차적인 양육자는 어머니라는 일반적 신념이 강함을 알 수 있었던 선행연구(Lee & Lee, 2007)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자녀의 사회적 발달이나 정서-언어적 자극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참여는 높지만 여전히 많은 아버지들이 아동의 위생, 수면, 건강유지·회복에 대한 양육참여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인식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참여를 높일 수 있게 격려하고, 양육참여도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 자녀 돌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참여도는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점수는 평균 44.60 ± 12.06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1-3세 자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 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중간정도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참여도'로 분류되는 대상자가 33.6%를 차지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행위에 아버지의 참여가 낮고 전적으로 또는 반이상 어머니가 양육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배우자의 지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letcher, 2009; Mezulis, Hyde, & Clark, 2004; Misri, Kostaras, Fox, & Kostaras, 2000; Lee, J. S.,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간에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 값이 .2이하로 낮아 두 변수간의 상관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어머니 우울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라 어머니 우울점수에 차이가 유의하게 있다고 나타났고, 사후검정 시 자녀 아버지의 참여도가 '낮은' 어머니 우울 점수는 자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중간정도'인 어머니 우울 점수보다 높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60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어머니 우울 점수가 양육참여도가 '낮은' 경우보다는 낮지만, '중간정도'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일상생활 스트레스,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체계, 가정환경 등의 영향 또는 산후우울과 같은 모성의 정신건강상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 우울 평균 점수가 10.24 ± 7.70 으로 경한우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상범주에 포함되나, 35.4%는 경한우울, 12.3%가 심한우울상태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임신중 우울, 산후우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어머니 우울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 우울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인간이 태어나서 초기 3년간의 발달이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른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 어머니들의 심리정신적 상태가 아동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Kim, Jang, & Kim, 2007)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들을 조기에 사정하고 적절한 치료 및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를 보인 자녀와 부모의 특성으로 자녀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유무, 월평균 가정수입, 결혼생활 만족도, 핵가족인 경우 부부이외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유무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시 월평균 가정수입은 401만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편인 경우 중간정도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와 Lee(200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맞벌이 여부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월평균 가정수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양육을 분담하게 되므로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의 가사분담은 결혼만족에 매우 중요하며, 취업 기혼 여성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혼 남성이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Kang & Yoo, 2005). Lee(1995)의 연구에서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으며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부이외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보다 자녀의 조부모나 친척 및 양육도우미가 있는 경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적 여유와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자녀와 일상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 우울점수에 차이를 보이는 부모 특성으로 어머니의 종교,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월평균 수입, 결혼생활 만족도, 핵가족인 경우 부부이외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유무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시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하가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인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았고, 어머니 학력도 고졸이하가 대학원 이상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았고, 월평균 가정수입이 200만원 이하 그리고 201-300만원인 경우 4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았다. 결혼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중간정도인 경우보다 그리고 중간정도인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 점수가 높았고, 핵가족인 경우 부부이외 아이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친척이나 양육도우미가 있는 경우보다 어머니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 Shin, Ryu, Cheon과 Moon(2004)의 연구와 Beck(2001)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 부부관계의 질, 결혼 만족도,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개념들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져 결정적 시기라고 불리는 만3세까지의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양육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동료의식, 연대감을 갖게 하고, 아버지와의 연대감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어머니가 육아불안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있게 자녀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라 어머니 우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 결과를 토대로 아동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모

역할 태도나 행동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녀 연령별 어머니의 정신건강 스크리닝이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자녀양육에 있어 사회적 이론에 바탕을 둔 어머니 혹은 아버지 부모역할의 차이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자녀의 생물학적 본성을 길러 주어야 하는 부모역할체계 안에서 개별적인 가족 으로서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핵심요소인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로 보아야 하는 관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양육역할분담에 대한 갈등을 가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겠 다. 또한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하여 인식이 높고 자신있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을 격려하고, 양육참여도가 낮지만 아동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배우자를 지지해줄 수 있는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 자녀 돌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참여도는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1-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 우울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방문한 어머니 277명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44.60 ± 12.06 점(문항평균 $2.23 \pm .60$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자녀의 사회적 발달 촉진 행위'는 15.61 ± 4.31 점(문항평균 $2.60 \pm .71$ 점), '자녀의 개인위생 돌보기'는 $8.71 \pm$

3.23 점(문항평균 $2.18 \pm .81$ 점), '자녀의 정서-언어적 자극'은 9.25 ± 2.99 점(문항평균 $2.31 \pm .75$ 점), '자녀의 수면-기상 촉진 행위'는 5.50 ± 2.38 점(문항평균 $1.83 \pm .79$ 점), '자녀의 건강유지·회복 돌보기 행위'는 5.53 ± 2.44 점(문항평균 $1.84 \pm .81$ 점)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 즉, '낮은 참여도', '중간정도 참여도', '높은 참여도'에 따른 어머니 우울 점수에는 차이가 있었다($F=5.488, p=.005$).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를 보인 자녀와 부모 특성으로는 자녀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유무, 월평균 가정수입, 결혼생활 만족도, 핵가족인 경우 부부외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유무이었다.
4. 어머니 우울점수에 차이를 보이는 부모 특성은 어머니의 종교,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월평균 수입, 결혼생활 만족도, 핵가족인 경우 부부외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유무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아동의 발달적 요인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서 제한적이지만, 자녀양육은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아동-모두가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어머니의 심리, 행동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2.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이 주제와 관련된 간호계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향

후 간호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상을 밝히고 적절한 중재를 모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아동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모역할 태도나 행동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eck, C. T. (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an update. *Nurs Res*, 50(5), 275-285.
- Chang, H. K., Hong, S. A., Lee, S. W., Kim, Y. R., Kang, E. H., & Kim, G. E. (2006). *A study for care work within family*. Unpublished manuscrip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ivic, D., & Holt, V. L. (2000). Maternal depression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normal birthweight Sample.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4(4), 215-221.
- Fields, T. (1998). Maternal depression-effects on infants & early interventions. *Preventative Medicine*, 27(2), 200-203.
- Fletcher, R. (2009). Promoting infant well-being in the context of maternal depression by supporting the fath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0(1), 95-102.
- Gurian, M. (2007). *Nurture the nature: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your child's unique core personality*. San Francisco: Wiley.
- Han, K. J. (2001). Development of a home-based nursing intervention, mothering program for low-birth-weight infants. *J Korea Acad Soc of Home Care Nursing*, 8(1), 5-24.
- Hoffman, C., Crnic, K. A., & Baker, J. K., (2006),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ergent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al function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006, 6(4), 271-295.
- Hong, K. H., & Jung, M. J.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care attitudes & linguistic patterns and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sociability. *J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2(2), 237-260.
- Kang, H. J., & Yoo, G. S. (2005). A study of sharing housework and child in dual-earner couples-focused on restraining and driving factors-. *Family and Culture*, 17(3), 187-219.
- Kim, J.,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ies*, 26(5), 245-261.
- Kim, S. W., Jang, M. K., & Kim, Y. J. (2007).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im, Y. Jcry,iand m, Y. Jtemperament on family function. *Korean J Living Science*, 16(2), 251-257.
- Kim, Y. H. (1998). *Interaction between first-time fathers and their inf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 Kim, S. J. (2008).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parent as teacher inventory. *Korean J Child Health Nurs*, 14(1), 79-89.
- Lamb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1),

- 245-266.
- Lee, H. J. (1995).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s satisfaction with marriage/job on their role-play and participation in child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S. (200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J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5-19.
- Lee, J. W. (2003). The childcaring stress of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and its related factor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7*(2), 207-216.
- Lee, J. Y. (2008).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gatekee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 parenting competence and paternal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 Lee, Y. H. (2007). A study on fathers' perception to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Korean J Human Ecology, 10*(3), 1-17.
- Mezulis, A. H., Hyde, J. S., & Clark, R. (2004).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during a child's infanc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75-588.
- Misri, S., Kostaras, X., Fox, D., & Kostaras, D. (2000). The impact of partner support in the treat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Can J Psychiatry, 45*, 554-558.
- Mun, B. H. (2008). *The differences of the children's play characteristics and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Park, Y. J., Shin, H. J., Ryu, H. S., Cheon, S. H., & Moon, S. H. (2004). The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J Korean Acad Nurs, 34*(5), 722-728.
- Sung, M. H., & Joo, K. S. (2007).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performance among husbands of primiparous. *Korean J Child Health Nurs, 13*(3), 291-298.
- White, C., & Barrowclough, C. (1998).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with problematic preschoolers: attributions for child behaviors. *Br J Clin Psychol, 37*(4), 385-398.
- Wilder, H. T. (1982). Mother/nature, a skeptical look at the unique naturalness of maternal parenting, in *child nurturance, volume 1, philosophy, children, and the family*, Edited by Cafagna, A.C., Peterson, R.T. and Staudenbaur, C.A..

ABSTRACT

Key Words : Child-rearing, Depression, Fathers, Mothers, Infant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Huh, Bo Yun* • Han, Kyung Ja**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were to describe levels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277 mothers who had one to three years old infant at 8 day care centers and 2 public health centers in S and B city.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at included the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scale and maternal depression(BDI). **Results:** The mean score for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was 44.60 ± 12.06 . For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 birth order, father's education, mother's job, income,

marriage satisfaction, support for child-rearing. The mean for maternal depression was 10.24 ± 7.70 . For maternal dep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mother's religion, parent's education, father's job, income, marriage satisfaction, support for child-rearing.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ternal depression according to the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Conclusion:**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influence child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assess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to develop knowledge about role of father for child health.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